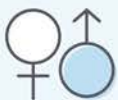


GLOBAL ESG WAY

숨겨진 *α* 찾기



[PRI in Person 2023 참관기]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책임투자
 일본의 재도약

CONTENTS

Summary	3
책임투자 Global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3
책임투자 : 글로벌 산업전환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	4
PRI in Person 2023	4
본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6
주요 관전 포인트	9
일본 지속가능금융으로 재도약을 꿈꾸다	13
지속가능금융 허브	13
일본정부의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의지	15
Appendix 1. PRI in Person 2023 일정표	19
Appendix 2.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20

Summary

책임투자 Global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의 연례 컨퍼런스 ‘PRI in Person 2023’이 지난 10월 3일~5일 3일간 Tokyo에서 개최되었다. PRI 비서명기관을 포함하여 52개국, 700개 기관, 1,400명 이상의 기관투자자((Asset Owner145/Asset Manager270), 정책입안자,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ransition Finance(전환금융)

높은 온실 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NetZero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는 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후 전략을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배출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전환금융’,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과 그 방법이었다. 이른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 투자분석 및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 ESG요소의 실질적인 반영, ‘공시규제’ 및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고려 등이 그것이다.

주요 논점

[전환금융의 중요성] 전환금융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Netzero 달성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차기 NDC 검토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Brown사업의 Green화를 위한 전환금융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SG요소의 투자의사결정 반영] 상장주식, 채권, 대체투자, 프라이빗 시장,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ESG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분석, 인게이지먼트를 활용한 투자자산 가치 향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논의했다. ESG요소 영향의 정량화는 모든 자산클래스를 대상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ESG투자 시장의 확대와 고도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독자적인 ESG요소 분석 툴을 보유하고 적용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가격’ 및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포트폴리오별 보유 기술 분석을 통한 그린매출 계산’ 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전환금융 허브로서의 가능성] 일본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산업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 GX(Green Transformation)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아시아 지속가능 금융 허브’를 준비했다. 글로벌 산업전환으로 탄생한 ‘전환금융’과 ‘지속가능금융’ 시장으로서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임투자는 더 이상 정성적이고 모호한 마케팅 요소가 아니다. 글로벌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글로벌 ESG투자는 고도화, 구체화되고 있으며 ESG요소 분석은 새로운 Nom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임투자 : 글로벌 산업전환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

PRI in Person 2023

글로벌 최대 책임투자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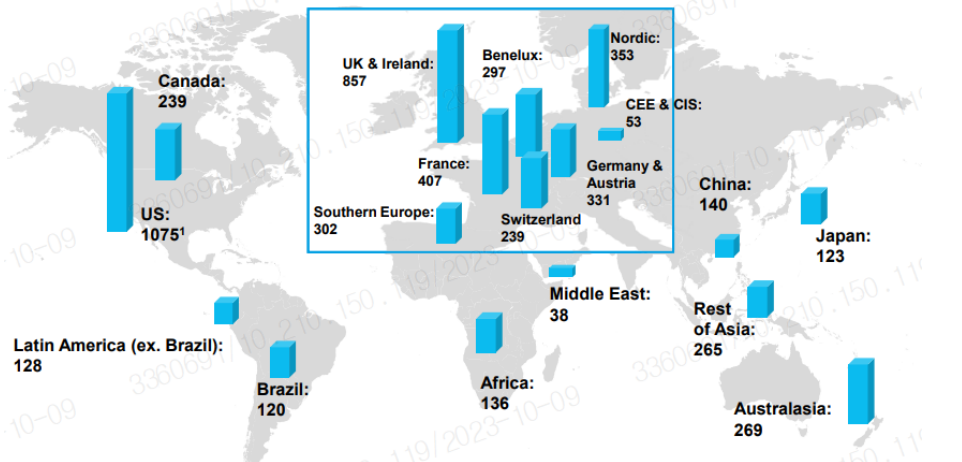
UN PRI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년에 지속 가능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실현을 목적으로 UN 지원아래 발족되었으며 투자분석과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반영하는 등 6가지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한 전 세계 금융기관 네트워크

6가지 책임투자 원칙 UNEP FI와 UN Global Compact 공동 개발

2022년말 기준 약 5,500개 이상 서명기관(Asset Owner 732기관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운용자산 121조 달러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의 연례 컨퍼런스 ‘PRI in Person 2023’이 도쿄(10/3~5)에서 개최되었다. PRI 비서명기관을 포함하여 52개국, 700개 기관, 1,400명이상의 기관투자자(Asset Owner145/Asset Manager270), 정책입안자,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해 ESG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림 1. PRI 선언기관 현황



자료: As of 30 June 2023. PRI H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RI in Person

PRI 서명 기관 및 기타 투자 전문가들이 전 세계 책임투자 이슈에 대하여 의견 및 지식을 교환하고 협동하는 플랫폼으로 연례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투자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등단하여 책임투자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고 ESG에 대한 과제 및 세계적 트렌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Moving from Commitments to Action(선언에서 행동으로)’ 라는 주제 아래 ‘공정한 경제로의 이행(Just Economic Transition)’, ‘기후와 자연자본(TNFD,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Anti-ESG에 대한 이해’, ‘Transition Finance(전환금융)’ 등과 관련하여 책임투자자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투자기회로서 활용하는데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총 5개의 전체회의(Plenary, 플레너리)와 29개의 세부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자들의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한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일정 Appendix 1. 참고)

투자자에게 고탄소배출 국가 비중이 높은 아시아의 ‘전환금융’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새로운 인프라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인권’ 및 ‘자연자본’ 등 일부 특정 주제 외에 많은 회의에서 ‘전환금융’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일본이 기시다 총리의 기조연설 및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의 ‘GX (Green Transformation), 전환전략’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주요 Side Events

공식 행사 외에도 여러 글로벌 자산운용사, Data Provider, 국제 이니셔티브 등이 주관하는 사이드 이벤트들을 통해 'Carbon pricing', '다양성 이슈', 'ISSB 지속가능성공시 제도 설명', '그린워싱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 그룹)은 ISSB와 연계하여 '그린 워싱과 방지 방법, 아시아 금융업계를 위한 입문 가이드'를 통해 '기후규제 및 공시의 최근 동향', '넷제로와 전환 텍소노미', '그린라벨링과 요건 기준' 등 그린 구별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위반사례(조직 및 구조 소개, 금융상품 공시, Equity투자와 Debt투자 구조화 과정에서 위반사례, 재무보고서 작성 등)를 소개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워싱에 대한 방지를 강조했다.

MSCI와 함께 투자자(LGIM) 및 학계 인사들과 아시아 탄소가격 체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유럽 등 기타 지역에 비해 낮은 탄소가격의 비효율성 개선(EU대비 현저히 낮은 아시아의 탄소가격내 세금 비중 향상 등)을 요청했다.

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는 지난 3월 일본증권거래소(JPX)에서 요구한 PBR 1배 이하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가치와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 NBIM(노르웨이은행투자청), CalSTRS(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등과 같은 Asset Owner를 초빙하여 실제 투자에 반영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거버넌스 이슈'는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 해외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의사결정 요소로서 최근 관심이 높은 Factor이다.

일본 내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본 거래소에서 거버넌스와 PBR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비효율적 자산 보유로 인해 PBR 수준이 낮은 일본 기업이 변화되도록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정부의 관점이 어느 정도 작용되었다고 한다.

지난 PBR 1배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의 개선안 요청에 이어 기업이 보유한 비효율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추가 권고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ISSB(International Sustainable Standard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설명 등 책임투자과 관련된 최근 이슈는 물론 제약회사의 백신개발 특허와 관련한 이슈, 인적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비용→투자)을 통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 변화 등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22개 사이드 이벤트들이 본 회의장 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본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1) 적극적인 투자행동 요청 ‘Moving from Commitments to Action’

2006년 설립된 PRI는 재무제표 외 기업가치와 관련된 ESG요소(무형자산)를 기업가치 및 투자가치 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가치평가 방식과 투자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다소 아카데미한 성격의 조직이었다.

IPR Inevitable Policy Response
 PRI의 의뢰를 받아 기관 투자자가 기후 변화에 대해 포트폴리오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정책 현황을 기반으로 넷제로 전환 속도와 규모를 예측하는 컨소시엄

2015년 ‘파리협약’ 실행으로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명 기관수와 운용자산 규모가 급증하면서 PRI는 IPR(Inevitable Policy Response)를 통해 글로벌 기후 및 인권 등 ESG세부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선언기관 실무자를 통해 정책에 관여하기도 한다.

최근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NZAOA(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NZAM(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등 NetZero달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Engagement
 책임투자에서 인게이지먼트(관여)는 대화 상호 당사자(기업과 투자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 PRI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기업과 투자대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장기적 투자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참석자들은 투자자로서 Engagement를 통해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주제 ‘Moving from Commitments to Action’는 이러한 PRI 입지 및 성격의 변화와 최근 글로벌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의 주요 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nti-ESG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ESG통합 : 가치평가 방법의 New Norm

지난 6월말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ISSB(지속가능성보고기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기준 S1(일반공시기준)과 S2(기후정보공시기준)을 발표했다. 발표 당일 ISSB 의장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는 “본 기준은 처음부터 현재 회계기준과 통합할 목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히며, “기업가치 분석을 위해 산업적 중대성(SASB)과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인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TCFD)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면서 ISSB가 SASB와 TCFD를 통합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첫날 전체회의에서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은 ISSB를 지속가능정보공시기준으로 공식 승인했다. 향후 회원국 거래소는 이를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IFRS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IOSCO 회원국인 한국은 ISSB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정보를 공시하게 될 것이다.

3) ESG통합 : 모든 자산과 투자테마에 확대 적용

총 29개의 세부세션은 ① 상장 주식, 채권(소버린 채권,라벨링 채권), 대출, 부동산, 프라이빗에쿼티, 대체투자를 대상으로 한 ESG요소 반영 과정과 과제, ② NetZero달성과 관련한 산업전환에 따른 투자전략과 이머징 시장에 대한 자금유입(투자기회) 등 투자테마 현황, ③ 기업과 투자가 정보공시, ④ 스튜어드십 및 인게이지먼트 전략 실행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운용 실무자들로 구성된 ‘패널토론’과 각 세션별 키워드를 통해 선진 금융기관들은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ESG요인에 대한 정량화 및 회계적 분석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산업 분석은 ‘Netzero’ 달성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 변화를 중심으로 테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과 모든 자산에 대하여 ESG요소를 반영하는 분석의 고도화 현황은 PRI in Person ‘전체 회의’와 ‘제부 세션 키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ay 1]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는 축사를 통해 투자자 포트폴리오 내 기후 변화 이슈와 관련한 투자자산 배분 비중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최대 Asset Owner(2021년 3월 기준. AUM 2,800억 달러) 중 하나인 ‘일본생명(Nippon Life)’ CEO는 “연기금은 규제강화 추세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높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과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책임투자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기업지속가능 정보공시 의무 강화, 지속가능 금융상품 규정 강화, 지속가능산업 육성 등과 같은 책임투자 규제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Day 2]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세금 스캔들에 연루된 VISTA 주식을 투자가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여 약 300억 달러의 할인된 가격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한 사례를 공유했다. Anti-ESG활동을 이해하는 세션에서는, ESG투자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Anti-ESG관점을 분석했다. 또한 산업전환과 새로운 가치평가 기법을 활용한 금융분석 관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Anti-ESG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세션 Key word

(자연자본) 스튜어드십 실행/인권 평가/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이동 / 통합 인게이지먼트를 활용한 투자방법 / 상장주식 ESG분석과 밸류에이션 / (프라이빗 시장) 지속가능성 성과 / 투자자 정보공시 프레임워크 / 소버린 채권 / (물리적)기후위험 측정

[Day 3]

PRI CEO 데이비드 아킨(David Akin)은 클로징 코멘트를 통해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NetZero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300여명의 참여자 (Delegate)들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및 정책적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요청했다.

*** 주요 세션 Key word**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통합 인게이지먼트 Climate Action 100+ / 대체투자 ESG분석 / 프라이빗 시장에서의 스튜어드십 활용 방안 등

주요 관전 포인트

[Day 1] NetZero 달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행동 실천 요구

‘No words, but deeds. No pledges, but allocations. No promises, but investments (말이 아닌 행동, 선언이 아닌 배분, 약속이 아닌 투자)’라는 주제 아래, PRI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금융방식을 지원한다는 확신’을 갖을 것을 요청했다.

1) 전체회의 1: ‘공정한 이행: 변화/혁신을 위한 투자자, 기업, 정책 입안자 협력 방법’

파리협정(글로벌), IRA(미국), EU Green Deal, 1+N Program(중국) 등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 환경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민간 자본에 의한 투자활동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본 투자를 실천해야 한다.

(참석자 : BNP Paribas/State Super/E fund/Ecopetrol/Climate Bond Initiative)

2) Keynote interview: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후전략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 Gap’

- 기업 관점 : 글로벌 기업 닛산은 EV 지속가능전략 실현을 위해 국가별 다양한 규제 등 해결해야할 복잡한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투자자는 고려해야 한다.
- 투자자 관점: 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①Timeline, ②추구하는 가치, ③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화 차이로 인해 Gap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Gap은 투자자와 기업간의 대화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참석자: 닛산/리소나 자산운용, 캘리포니아퇴직연금 (CalPERS))

3) 전체회의 2 :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의 정책’

글로벌 증권시장의 약95%의 회원국이 참여한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ISSB(국제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과 TCFD 기준을 표준 공시기준으로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해당 공시사항을 반영한 국가별 공시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참석자 : ISSB/IOSCO/FSA(일본금융청)/호주대사관재무담당 대표)

4) 그 밖의 다양한 활동

공정한 경제 이행 변화를 위한 투자자, 기업, 정책 입안자 협동방안 보고서 발표
본 보고서에 따르면 리더는 ① 경제적 공정한 이행 목표를 공동 과제로 인식 ② 실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③ 민간 자본 유치 계획, ④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연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 SPRING 발표

기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훼손과 토지환경 악화 이슈에 대해 자연과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과제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Day 2,3] 투자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분과회의

ESG요소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통합/인게이지먼트 와 스튜어드십), 금융상품(소버린 본드, 라벨링 본드 등), 투자분석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SG요소를 반영한 기업가치를 산정 즉, ESG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 방법 및 실현 가능 여부는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행사 중 실제 ‘목표가 산정’ 사례를 제시한 세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ClearBridge Investments’ 상장주식 ESG Integration: 재무분석 및 목표가 산정

‘ClearBridge Investments’ 뉴욕에 본사를 둔 AUM 1,654억 달러의 자산운용사로 30년이상 모든 운용자산을 대상으로 ESG 통합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SASB프레임워크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구성한 산업별 중대성맵을 활용하여 기업별 지속가능성 중대성 이슈를 선정한다. 현재 37명의 애널리스트가 직접 펀더멘털 인게이지먼트를 수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ESG 평가 및 등급을 산정하고 밸류에이션에 반영한다.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기업의 ‘인게이지먼트 성과’인 기업가치 향상 부분과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가 연동되어 있다(특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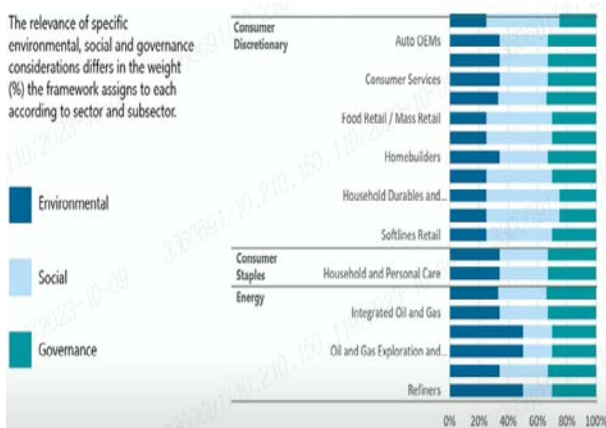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동사 애널리스트들은 ESG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섹터내 리더 그룹에 대하여 평균으로 약 35%의 프리미엄을 부여했다. 규제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해당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성장률 전망치를 5%~11%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섹터(유틸리티, 식품)의 ESG밸류에이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식품 기업의 경우,

- ①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재생농업실천/공급망 투명성 여부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해당 회사의 산업내 위치를 파악하고,
- ② 플라스틱 패키징 감축/설탕 및 소금 사용 감소를 통한 건강한 식품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혁신기술 수준을 측정하며,
- ③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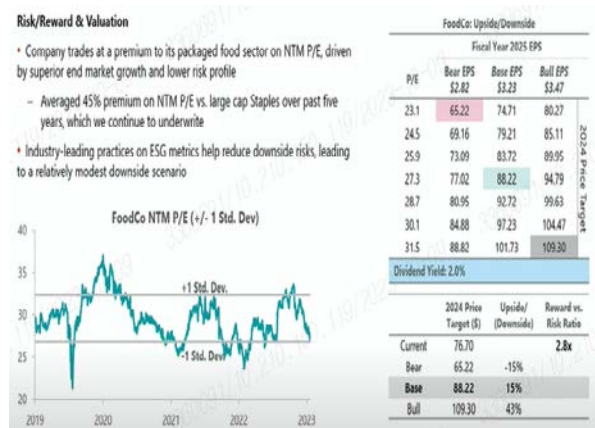
평가스코어는 독자적인 정량화 Table에 따라 예상 재무제표 및 목표가 산정에 반영하며 산업별 상이한 평가 항목을 적용한다.

산업별 상이한 E/S/G 이슈 및 비중 적용



자료: ‘ClearBridge Investment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식품회사 목표가 산정 사례



자료: ‘ClearBridge Investment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29개 세션(각 1시간) 중에서 주요 자산 클래스별 ESG통합 전략 실행과 관련한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했다. 세션별 동영상은 PR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리스트는 Appendix1. PRI in Person 2023 일정표 참고)

① Session 2B : 기업/투자자의 비상장 시장의 지속 가능성 투자 관련 데이터 활용 현황

투자 가치사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Nozomi (portfolio company, 일본 재생에너지 사업 플랫폼)는 운영중인 자산 또는 새로운 개발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시 평가를 위해 '자산 위치, 복사량, 바람의 세기 같은 자원 정보, 전력망, 기후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 모델을 활용한 재무 분석,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사회적인 영향 분석에도 활용 중이다.

Actis (asset manager)는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성과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규정 투자 기간 동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업이 Actis에 ESG요소가 통합된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경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에 따른 할인율 감소를 통한 높은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투명한 ESG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PKA (asset owner, 덴마크 3대 연금)는 탄소감축 목표 (2025년 29%, 2030년 50%, 2050년 100%)를 설정하고 35만명의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축현황 및 유럽의 EU Taxonomy, SFDR 기준에 따라 펀드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비상장사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데이터 증가 속도는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이다.

② Session 3A : 소버린 채권과 정책관여

채권을 발행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게이지먼트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약 1/3 (Eurosif, 2018)에 해당하는 소버린 채권에 대한 주요 책임 투자 전략은 Exclusions(배제전략)이며 특히 한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과 사회규범을 기준으로 한 배제전략이 사용된다.

최근 국가 신용평가 모델에 ESG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탄소감축과 관련한 환경 이슈는 소버린 채권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 Engagement 수행은 어려운 과제다. 특히 USD, Euro, JPY 주요국 통화를 대상으로 한 '규범기준 배제전략(Norm-based exclusion)'을 적용할 경우 기타 자산을 포함한 전체 외화 Exposure계산 시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버린 채권 사무국의 60%는 투자자들의 ESG관련 문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World bank 2020). 기후 리스크가 국가 부도 위험으로 전이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 정부간 '인게이지먼트'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버린 채권 인게이지먼트 주요 주제는 SDGs, 파리협약과 같은 글로벌 이슈 중심이며, ① 넷제로 선언과 실행과정의 Gap확인, ②정보공개 투명성, ③ 정량적 data 기반의 연간보고서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같이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회사채, 상장주식, 국채 등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국가노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③ Session 4D : ESG 채권과 대출 상품 및 ESG 책임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기대

ESG 채권 상품의 특성과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팩트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Use of proceeds 상품은 조달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 및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즉, 특수한 목적을 갖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이다. 그린 채권, 사회적 책임 채권, 특히 일련의 녹색 전환 채권 (GX Transition Bond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달된 자금은 사전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Taxonomy상 '그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경우 '그린 워싱'에 해당된다. 금리수준 등 발행조건은 발행자 신용 보다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반면,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되나 쿠폰이 사전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KPI와 연동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sustainability linked bond)은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행된다.

Sustainable Fitch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그린채권의 특성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성 채권의 특성을 결합한 '전환채권(Transition Bond) 발행'이 늘고 있다.

④ Session 5D : 대체투자 ESG와 재무분석

대체자산 직접투자 및 운용사 선정을 위해 LP가 수행하는 'ESG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Aware Super (호주 3대 연금, AUM1,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한 중대성 (Materiality)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가능 이슈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펀드 운용 방안의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직접 '다양성, 사이버 보안, 배출 감소 계획 등'에 대해 판단한다.

모든 위탁 운용사실사 (Due-diligence) 과정에서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동시에 운용사별 Mandate의 중요성과 투자스타일은 개별적으로 반영한다.

일본 지속가능금융으로 제도약을 꿈꾸다

지속가능금융 허브

일본의 이번 PRI 행사 주최 목적은 '국제 지속가능금융 허브로의 도약'이다. 중국이슈를 배경으로 아시아의 국제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지금, 홍콩을 대체할 후보로 '싱가폴'과 '도쿄'가 떠오르고 있다.

싱가폴은 지속가능투자(ESG 투자)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금융기관에게 한화 약 50억원 상당의 Incentive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중이다.

전 세계 5,000기관 AUM 121조 달러의 Asset Owner와 Asset Manager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관계자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인 PRI는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본의 지속가능금융 허브로의 입지를 어필하는데 매우 적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PRI 행사는 'Japan Week'(9월25일~10월6일)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일본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PRI참가자 1,300명에 달하는 글로벌 주요 Asset Owner와 Asset Manager를 대상으로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 특히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기반, 전환금융에 대한 준비 현황과 핵심 기술 육성 및 지원 의지, 대규모 개인 저축자산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Japan Week

일본 정부는 도쿄 지속가능금융주간 (9월30일~10월6일)과 경제산업성(METI)의 GX(Green Transformation)주간 (9월25일~10월6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Japan Week'로 규정했다. 글로벌 최대 금융관계자들이 모인 PRI 행사를 활용하여 일본의 금융 비즈니스 환경을 홍보하고 아시아 자산운용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적이다.

이 기간 중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지속가능 금융 및 GX전략을 홍보하고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대강화에 활용했다.

ICGN은 기업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르웨이 연금기금(NBIM)등이 참여하여 기준과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PBR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블랙록은 해외 투자자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하고 CalPERS운용담당자를 초빙하여 기금운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 일본 기업들과 대화를 진행하는 등 일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의 교류기회를 확대했다.

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국제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지방 공공 기관
공무원 170만 명에게 은퇴연금과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연기금

TCFD

2023년 6월말 현재 TCFD 권고 사항을 지지하는 국가, 기관, 기업수: 약 4,500곳 (일본 지지선언 기업 및 기관수 1,344개)

아시아 기후금융의 중심지 ‘일본’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정보공시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는 TCFD 프레임워크가 확정된 시점은 2017년이다. 일본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TCFD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2019년).

작년 4월 거래소 개편 과정에서 ‘프라임 시장’ 상장기준으로 TCFD 또는 이에 준하는 기후정보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및 기회 요인으로 인식된 기후변화에 관련한 글로벌 기준의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가의 일본 기업투자 접근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배출감축과 경제 성장을 연결한다는 취지하에 GGX(Global Green Transformation)포럼을 개최했다. TCFD관련 국제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다. 이번 ‘Japan Week’기간 중 ‘GGX x TCFD Summit’ (경제산업성, WWF후원)개최하고 전환금융, 배출량 감축 지원을 위한 금융육성, 산업 탈탄소화 등을 위해 정부, 기업, 금융 부문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정부의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의지

일본 총리: 경제 성장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금융 지원 약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PRI 오프닝 기조연설에서 1) GX (Green Transformation,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투자, 2) 스타트업 지원, 3) 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 대응, 4)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지속가능 금융’과 ‘경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1) GX(Green Transformation, 그린·트랜스포메이션) 투자

지난 7월28일 발표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GX추진전략)’에는 ‘2050 NetZero’달성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50조엔 이상 규모의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 조달 방법으로 재생 에너지 및 산업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Climate Transition Bonds’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GX (green Transformation) 개요

수립 배경	2023년 현재 전 세계 탄소 중립 선언 국가·지역 증가 중(글로벌 GDP 90% 이상)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을 달성할 위한 전략의 필요성과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일본 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배경으로 탄생.
주요 내용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2) 새로운 금융 투자 방법 도입, 3)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일본 전역의 Green Transformation 달성을 구성되었으며 ‘2050NetZero’달성을 위한 글로벌 산업 전환을 기업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 우위성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었음.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Transition Finance

높은 온실 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NetZero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는 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후 전략을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배출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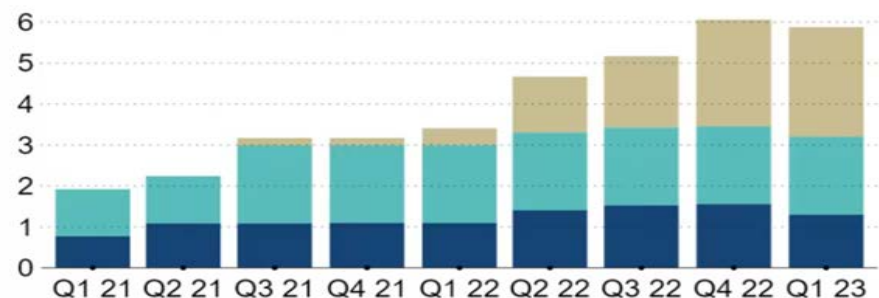
이산화탄소 배출량 5위(11억700만)인 일본에게 있어 Transition Finance는 매우 중요한 금융기법으로 2021년 경제산업성은 탈탄소화를 위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Climate Transition Finance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Climate Bond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발행된 54개 글로벌 전환채권 중 일본 발행은 21건에 달한다.

그림 2. 전환채권 발행규모

Transition bonds outstanding

(In billions of dollars)

■ China ■ Hong Kong ■ Japan



자료:Climate Bond Initiativ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GX실행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23년 중에 글로벌 최초 국제기준(Climatic Initiative의 Transition Bond Standard)에 부합한 정부 'Transition Bond' 발행을 추진하는 등 '전환 금융'을 통해 글로벌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달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과 철강/화학/자동차/산업설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본과 함께 투자될 것이며, 이 중 20조엔은 연구개발 등에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까지 '지속가능성 투자상품을 위한 Dialog'(금융청)를 도입하고 폭넓은 투자층 (일본 일반투자자 및 글로벌투자자)을 대상으로 양질의 GX 투자상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GX투자를 위해 '아시아 GX컨소시엄'을 2024년 상반기 까지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2)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창출 5개년 계획(2022년 원년으로 지정)을 수립하고 10조엔(약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임팩트 투자에서 중요한 투자자 약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투자 기본 지침^{주1)}을 책정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등 사회 변혁을 위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3) Reskilling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인적자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등용을 확충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기업가치 향상에 필수 요소인 양질의 인적자본 구축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와 기업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결산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유가증권 보고서 의무공시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원하는 금융 기능의 강화

Asset Manager와 Asset Owner의 책임투자¹ 역량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책임투자 기반의 일본 자산운용 허브 국가 실현을 위해 2023년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책임투자원칙(PR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7개 공적 연기금(AUM 90조엔)의 PRI선언 촉진을 약속했다.

이번 공적 연기금의 PRI 선언 동참 약속에 대해 행사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국내기관 참여자들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¹ 책임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임팩트 투자'를 위해 일본은 2020년 '금융청' 산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하고 지난 6월 '임팩트 투자 기본 지침'을 책정, 현재 시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10/25).

도쿄도지사 : 지속가능 금융 허브 'Tokyo' 소개

PRI 행사에서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 도쿄도지사는 '기후 및 에너지 위기와 자연 재해, 국제 정세, 다양성 확보 등 모든 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 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1) '환경' 이슈 관련 지원 성과 및 계획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2025년 태양광 패널 의무화→2030년 50%감축 →2050 모든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도쿄 메트로폴리탄 NetZero계획'을 제시했다.

도쿄 탄소배출량 중 빌딩 차지하는 비중은 약70% (Commercial 40.7%, Residential 32.3%)이며, Zero Emission달성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모든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그림 3)

총배출량 거래제도(Cap-and-Trade)를 통해 2021년 현재 기준 도쿄내 약 33%의 탄소감축을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그림 4)

아시아의 '녹색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TGFI(Tokyo Green Finance Initiative)를 설립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28억 달러의 ESG본드'가 발행되었고 스마트 에너지사업, 자연보호,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프라이빗 섹터의 Green bond 지원은 Transition Bond로 확대하고(그림 5) PPP(Public-Private-Partnership) 구조의 신규 펀드를 설립하여 에너지 생산 및 저장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그림 6)

도쿄내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SMEs)의 '탈탄소' 사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탄소 크레딧 생성'과 '배출권 거래 제도'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그림 7)

2) '사회'이슈 중 다양성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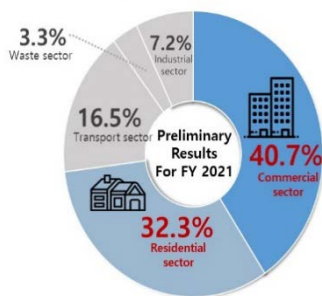
'Social Impact Investment Fund' 설립을 통해 헬스케어, 의료, 영양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중심으로 임팩트 투자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3) 지속가능금융 허브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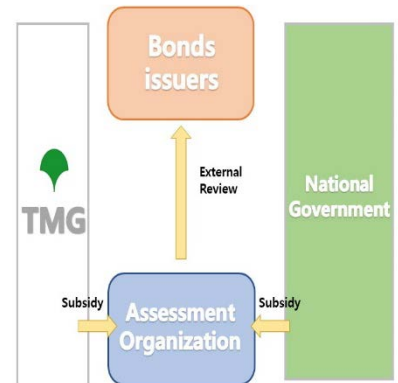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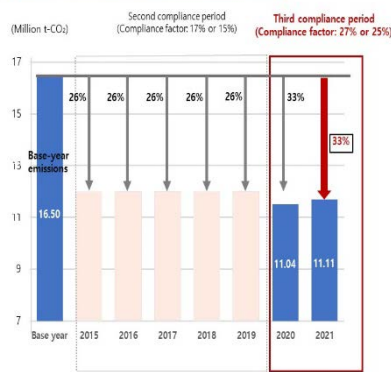
도쿄도는 14조 달러 이상의 가계자산, 1,400만 인구 및 높은 GDP (일본 GDP 20%) 등 금융비즈니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도지사는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그린 관련 회사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ex: Financial One-stop Support Service) 및 서비스 설비를 구축하고 현황에 대하여 Data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그림 8)

그림 3. Promotion of Zero Emission Bldg 그림 4. CO₂ Reduction Program 의무화 그림 5. 프라이빗 섹터 채권 발행 지원

Sector breakdown of CO₂ emissions in Tokyo



Achieved 33% r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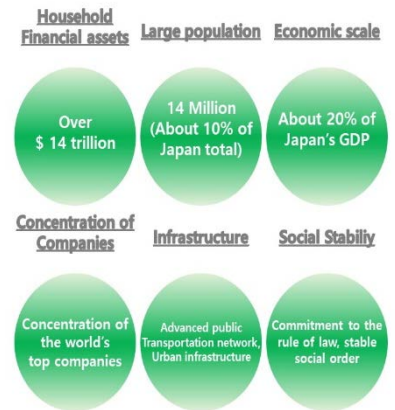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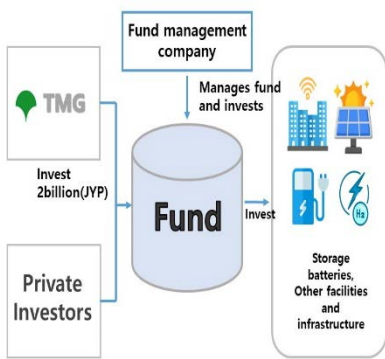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PPP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달성 그림 7. 모든 공급망의 '녹색화' 지원 그림 8. 금융비즈니스를 위한 도시 '도쿄'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도쿄도지사 발표자료(10/4),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1. PRI in Person 2023 일정표

Day 1 (10/3)	
개회사	PRI CEO: 데이비드 아킨 일본생명보험(Lead sponsor) 사장: 시오미즈 히로시
기조연설	일본총리: 기시다 후미오
전체회의1 (Plenary)	공정한 경제로의 이행: 변화와 혁신을 위한 투자가, 기업, 정책입안자들의 협력 방법
기조대담 (Keynote interview)	리소나 자산운용 / 닛산 자동차
전체회의2 (Plenary)	The policy landscape in Asia and beyond: 투자가 관점의 정책조정 지원 방법
Day 2 (10/4)	
전체회의3 (Plenary)	기후와 자연자본: 현재 상황 및 투자가 액션 방법
분과회의1	1A: 전환계획의 실천 (Transition plans in practice)
	1B: 인권 스튜어드십 (Assessing stewardship on human rights through Advance and beyond)
	1C: [학술적 네트워크 회의] 기후 리스크와 투자 (Academic network conference Climate risk and investing)
	1D: 상장주식 재무분석, 예측, 밸류에이션 과정의 ESG 통합 (ESG and financial analysis, forecast and valuation in listed equity)
	1E: 시스템 레벨에서의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or as system actors: What are the pathway for system impact?)
	1F: 이머징마켓 자금 유입 (Driving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분과회의2	2A: NetZero 이행 시나리오의 투자전략 반영 최신 동향 (Translating the latest net zero transition scenarios into investor strategy)
	2B: 데이터 활용을 통한 프라이빗 시장 지속가능성 아웃컴 촉진 (Using data across the investment chain to derive sustainable outcome in private markets)
	2C: [학술적 네트워크 회의] 기업의 정치활동(Academic network conference Firm and corporate political activities)
	2D: ESG 기술 교육 및 훈련 (Bridging the ESG skill gap)
	2E: 투자가 의무와 지속가능성 목표 (investor duties and sustainability goals)
	2F: 자연자본 스튜어드십 (Nature stewardship: navigating the ecosystem)
분과회의3	3A: 소버린 본드와 정책관여 (Sovereign bond and policy engagement)
	3B: 투자가 정보공시 프레임워크 (Navigating investor disclosure frameworks)
	3C: [학술적 네트워크 회의] 다양성, 공정성과 포괄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veness)
	3D: 책임투자의 다양한 접근방법 (recognizing variety in responsible investment approaches)
	3E: 투자방법으로서 협동 인게이지먼트 (Collaborative engagement as an investor tool)
	3F: 물리적 기후위험 평가와 관리 (How can investor assess and manage physical climate risk and support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전체회의4 (Plenary)	ESG 비판에 대한 이해
기조연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Day 3 (10/5)	
분과회의4	4A: Climate Action 100+ 협동 인게이지먼트 (Collaborative engagement in a rapidly warming world: Implementing phase 2 of Climate Action 100+)
	4B: 실무관점의 지속가능성 성과 (Outcome): SDGs and Beyond
	4C: [학술적 네트워크 회의]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Governance and Incentives)
	4D: 라벨링 채권과 론 (Labelled bonds and loans)
	4E: 벨류체인내 인권이슈 관리 (Managing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value chain)
	4F: 자연자본 스튜어드십 (Nature stewardship: navigating the ecosystem)
분과회의5	5A: TNFD보고서 자연관련 정보공시를 시작하는 방법 (TNFD Reporting: how to get started on nature related disclosure)
	5B: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스튜어드십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in Asia)
	5C: [학술적 네트워크 회의] System level investing
	5D: 대체투자 ESG와 재무분석 (ESG and financial analysis in alternatives: what LPs need to know and manager need to communicate)
	5E: 지속가능성 성과(Outcome)을 위한 투자 (Investing with sustainability outcome)
	5F: 프라이빗시장의 스튜어드십 기회 (Leveraging opportunities in private markets)
기조연설	Future map 설립자, 국제정치학자 Parag Khanna
전체회의5 (Plenary)	책임투자 리더십
폐회사	PRI CEO: 데이비드 아킨

자료: PRI in Perso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2.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주요 내용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한 탈탄소 정책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에너지 자급률 향을 위해 탈탄소 전원(電源)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 제공

이니셔티브 ①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지원 강화: 다년간의 투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 창설 등
-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화 지원 강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단열창으로 개조 등
- 주요 5 업종(철강업·화학공업·시멘트 제조업·제지업·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 추진: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비화석 에너지 전환 기준 표시 등 요청.

이니셔티브 ② 재생 에너지의 주력 전환화

- 2030년도의 재생 에너지 비율 36~38%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과거 10년간의 8배 이상의 규모로 전력 네트워크의 정비를 가속화한다. 특히 2030년도까지 훗카이도에서 출발하는 해저 직류 송전을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환경을 정비
- 해상 풍력 도입 확대를 향해 「일본판 샌드럴 방식」을 확립하고 새로운 공모방식에 따라 공모 실시.
-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사업규제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부유식 해상풍력 사회현실화.

이니셔티브 ③ 원자력 활용

- 엄격한 안전심사를 전제한 가동기간 (40년+연장 20년)을 개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지된 발전소에 한하여 추가 연장을 인정
- 그 밖의 핵연료주기(원자력 발전 사용한 연료(사용 후 연료) 중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이 연료로서 재사용 가능한 물질을 분류하여(재처리), 이를 다시 혼합하여 'MOX 연료' 라고 불리는 연료로 가공하여 발전 연료로서 재사용) 추진
- 폐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경청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 정비 및 연료의 최종 처분하는 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

2)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투자 방법 도입

금융투자 방법 ① GX경제이행채권(GX Green Transition bond) 발행 자금을 활용한 선행투자 지원

GX경제이행채권, 향후 10년간 150조원을 넘는 GX투자를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Use of Proceed)채권. 민간자금으로 투자하기 곤란한 안전 중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 성장과 배출 삭감의 양립에 공헌하는 분야에의 투자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

금융투자 방법 ② '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을 통한 'GX투자' 촉진

-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을 통해 탄소 배출 가격을 책정하고 GX 관련 제품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 즉시 도입하지 않고 GX에 대한 적응기간을 마련한 후 에너지에 관련된 부담의 총액을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도입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인상)하는 방침 채택하고 관련된 지원조치와 함께 GX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투자 방법 ③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활용

- GX 기술의 사회적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GX 추진기구' 를 통한 보안책 (채무보증 등) 검토·실시.
- 전환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금융' 추진 환경 정비.

3) 중소기업 GX 지원

일본 탄소중립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GX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사 배출량 파악을 통한 감축 등 공급망내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공급망으로 확대, 연계하여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상품 시장을 창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다각도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

지원책 ① 정부, 독립행정법인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협회의 온라인 상담 창구 설치, '탈탄소 대응 사례집' 작성, '국가 전자 공시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한 배출량 가시화 지원, 에너지 절약 및 CO2절감을 촉진하는 설비 투자 지원을 통해 배출량의 삭감 지원을 추진. 또한 그린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및 그린 분야 확장 사업 지원

지원책 ② 지원기관 인재육성, 지원체제 강화

중소기업 지원 기관 또는 금융 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탈탄소'관련 자격 인증 제도 실시 등을 통한 인재육성을 지원함. 이와 함께 지원 기관의 '탄소중립' 시행 정책실행을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 기관의 체제 강화를 지원

지원책 ③ 거래처 및 공급망내 탈탄소 대응 추진

'하청중소기업진흥법 15''진흥기준' 항목에 협력업체의 탈탄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파트너십 구축 선언 내용을 확장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대응을 촉진

지원책 ④ 스타트업에 대한 GX 이노베이션 촉진

2022년 11월 규정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바탕으로 GX관련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업화 지원 등에 관한 항목 강화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